



# 최근 OPEC 동향과 전망

이 자료는 日本 국제경제연구소의 히타나카 비키 차석 연구원이 일본경제신문에 발표한 논문을 옮긴 것이다.  
 <편집자註>

## 사우디, 이란 패권쟁탈의 양상 보여

**지** 난 3월 25, 26일 양일간 제네바에서 개최된 OPEC의 제12회 각료감시위원회(M-MC)는 작년 9월에 채택한 전체 생산상한인 2,452만b/d를 94년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폐막하였다.

회의에서는 우선 OPEC사무국에서 다음 세가지의 시나리오를 논의의 과제로 제시했다. 첫째는 전체 생

산상한을 94년말까지 그대로 두는 “현상유지”안이다. 단, 이 경우 유가가 1배럴당 10달러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우려되었다. 둘째는 전체생산상한을 94년말까지 약 백만b/d 삭감하는 “일률감산”안이다. 2, 3분기(4~9월)를 통하여 수급 균형을 유지하고 10월 이후에 유가의 회복을 도모하는 방향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셋째는 전체생산상한을 2, 3분기에 일일 약 140만 배럴, 4분기에 약 40만b/d 삭감하는 “재고 해소”안이 있다. 93년에 누적된 잉여재고를 없애고 유가를 조속한 시일내에 18달러 수준으로 회복하자는 전략이다.

이란, 나이지리아등은 유가를 다시 올리기 위하여 감산을 강력히 주장하지만, OPEC생산량의 약 1/3, 세계매장량의 거의 1/4를 자랑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고집스러운 반대로 인하여 한데 결속하지 못했다. 삭

참여력이 큰 사우디아라비아가 합의에 가세하지 않는다면 OPEC로서도 대폭적인 감산은 기대하기 어렵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첫째 유가에 관하여는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수준이 바람직하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것은 사우디가 세계 제일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소비국에 석유수출량의 한계를 정하여 적은 양을 장기간 수출하는 것이 좋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非OPEC석유의 개발과 대체에너지의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석유의 고가격화는 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지나친 저가격은 OPEC각국의 수입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는 인식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자세를 가진 사우디가 이번 감산에 반대한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간단한 숫자를 맞추어 놓은 듯한 감산에 합의하더라도 과거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을 지키는 것은 몇나라 밖이므로 결국 유가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사우디는 지금까지의 감산 협력에서 생산량을 줄이고, 가격도 낮게 유지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왔다.

(3) 현재의 저유가는 非OPEC의 생산증가에 의한 영향이 크지만, 북해유전의 산유국은 감산의 의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OPEC의 삭감은 시장 세어의 상실과 연결된다. 동시에 간신히 회복 조짐을 보이는 선진국 경제, 특히 걸프만 전쟁에서 다국적군을 한데 모아 이라크의 침략에서 쿠웨이트를 해방시킨 미국의 경제회복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도 지금의 저유가를 유지하지는 판단이 산유국들 사이에 일고 있는 생각이다.

어쨌든 이번 회의에서는 OPEC의 양극화가 점점 진행되고 있는 것이 명확해졌다. 한쪽에서는 가격을 올려 단기수입의 증가를 도모하려는 잉여생산력이 적고, 인구는 많고, 게다가 1인당 GNP는 낮은 이란과 같은

나라들이 있고 다른 쪽으로는 가격을 억제하여 수요증가를 불러 장기수입의 극대화를 도모하려는 잉여생산력을 갖고 있고, 인구는 적고, 게다가 1인당 GNP는 높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이 있다. 이래저래 양극대비의 구도는 명확해졌다.

3월의 OPEC회의 전후부터 지금까지 절제해 왔던 이란의 사우디아라비아 비판이 붓물 터지듯 격화되었다. 게다가 석유정책을 둘러싼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책 방향의 차이점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성도 메카로의 이란인 순례자수에 관한 대립도 얽혀 있고, 아라비아만을 끼고 있는 양국의 오래전부터의 정치적 패권 쟁탈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국은 지금까지도 대립과 협조를 되풀이하지만, 최근 수년간은 대체로 양호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특히 작년 9월에는 파드 사우디아라비아국왕과 라프산자니 이란 대통령이 직접 전화로 회담하여 OPEC 전체 생산상한과 국별생산 쿼터를 정할 정도였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연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비난은 기이한 인상을 부정할 수 없다.

어쨌면 새로운 이란지도층 내부의 싸움이 관계되었을지도 모른다. 동시에 국내경제의 악화에 신음하고 있는 이란이 국민의 불만을 외부로 표출하려는 의도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비난을 전개하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어쨌든 양국이 다시 정부계 소식통을 통해 비난의 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일내의 화해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OPEC는 적어도 금후 수년은 이란, 사우디아라비아를 각각 중심으로 하여 2개의 세력으로 분열된 체 시장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 저유가는 산유국에 타격

양극화 된 OPEC의 행방을 점치는 이상으로 현재 주목되는 것은 유엔의 경제제재하에 있는 이라크가

이것을 풀고 국제석유시장에 복귀하여 오는 때의 대응에 있다. 지금 당장 이것이 실현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러시아가 제재해제후를 내다보고 유전개발의 이권획득 교섭 등에서 이라크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보건대 95년에는 구체적인 일정에 올라갈 기미가 있다.

여기에서 이라크의 생산증가분을 그외의 OPEC여러 나라들이 감산하지 않는다면 유가의 재하락을 피할수 없다. 각국의 현 생산량에 대해 일정비율로의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생산량이 높은 나라가 고율로 감산하자고 하는 이라크가 정면으로 부딪치는 사태도 예상된다. 그런데 OPEC회의국의 유가의 동향을 보면 당초 예상되었던 급락은 발행하지 않고 OPEC가 기준으로 하는 7개 유종의 바스켓가격은 94년초부터 4월중순까지의 평균과 다름없이 배럴당 13.62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 가격은 걸프사태가 발생한 1990년에 22.26달러로써 목표치 21달러를 상회했지만, 이후 91년 18.62달러 92년 18.44달러, 93년 16.33달러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유가의 계속된 하락은 OPEC내부에서도 상대적으로 석유 의존도가 높은 중동제국의 경제에 한결같이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유가를 끌어 올리기 위해 감산을 주장하는 이란은 유가 하락에 의한 석유 수입의 감소 때문에 단기채무의 상환지연으로 결국 금년 3월부터 4월중에 일본, 독일, 이탈리아와의 사이에서 60억달러용자라고 하는 실질 리스케줄(상환 지연)이 불가피하다.

감산안에 강하게 반대했던 사우디아라비아도 당면한 재정사정이 좋은 편은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월 하순, 미국으로부터 군사구입대금 92억달러중 약 60억 달러의 지불시기를 연기하기로 하는 것에 대해 미정부와 미기업들과 합의하고 있다.

예전에는 풍부한 오일머니를 사용하여 여유를 가지

고 이것들의 지불을 행하여왔던 사우디인만큼, 시대의 변화를 실감하는 예라 할 수 있다.

## 방만한 재정운영 개혁필요

중동산유국의 경제에는 재정적인 면에서나 공업화 등에 정부가 너무 과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재정면에서는 법인과 개인으로부터 세금의 징수가 불완전하고, 혹은 국가에 있어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세입상의 결합도 있다.

게다가 식료품을 제외한 기초상품과 의료, 보험, 교육등의 서비스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한 지출, 다시 말하면 보조금이 중동산유국의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게다가 석유를 기본으로 하는 기간산업의 대부분은 국영 또는 반국영이다.

그런데 현재의 저유가는 정부가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보살펴준다고 하는 지금까지의 경제시스템의 재고를 각국지도자에게 싫든 좋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걸프전쟁과 같은 피해와 저유가라고 하는 2중고로부터의 경제재건을 위하여 쿠웨이트는 1월 중순, 재정장관이 경제, 개혁의 조속한 실시를 요청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소비억제를 목표로 하는 서비스요금의 부과, 보조금에 대한 재고, 서비스수준에 영향을 주지않는 범위에서 불필요한 정부지출의 억제, 공적부문의 임금지출의 삭감, 외국으로 부터의 투자촉진등이 실려있다.

중동산유국에 있어서 저유가는 수입감소에 연결되어 있는 만큼 역경도 심하다. 그러나 각국 지도자가 관계하는 것을 망설여온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일반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는 두번 다시 없는 기회이다.

중동산유국의 금후의 경제발전은 석유가격의 수준에도 영향을 받지만 이번 기회에 경제의 합리화, 효율화를 어디까지 이루는가에 달려있다. ♣(일본경제신문)